

2020년 지방직 7급 국어(A책형) 재미있고 아주 자세한 해설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블로그나 이메일로...

출력할 때 페이지가 최대한 끊기지 않게 하여서 페이지가 많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 1. 밑줄 친 외래어 표기가 옳은 것은? (2020년 지방직 7급 A책형 문1)

- ① 그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 ② 위험물 주위에 바리케이트를 쳤다.
- ③ 이 광고에 대한 컨셉트를 논의했다.
- ④ 인터넷을 통해 많은 컨텐츠가 제공되었다.

정답 및 해설 (2020년 지방직 7급 A책형 문1)

① 그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O)

☺**영보이 암기tip**) 엽지공주가 심포지엄에 참석할 예정이다.

< 엽지공주 - 심포지엄 >

② 위험물 주위에 바리케이트를 쳤다.(X) → 바리케이드(barricade)

◆ barricade와 같이 't'가 아니라 'd'이므로 '바리케이드'가 옳다.

☺**영보이 암기tip**)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며칠 굶은 트라쿨라는 바리케이드에 그려 있는 사람을 힘껏 물었다. 빠지직.. 예구, 이가 다 부러졌잖아요. 잉잉.. ㄸㄸ

< 바리케이드 - 트라쿨라 >

③ 이 광고에 대한 컨셉트를 논의했다.(X) → 콘셉트(concept)

☺**영보이 암기tip**) 이번 신(scene)은 코를 훌쩍거리는 것이 콘셉트야. 훌쩍훌쩍 ~ . 야, 코는 흘리지 마. < 코가 - 콘셉트 / 코 - 콘 >

④ 인터넷을 통해 많은 컨텐츠가 제공되었다. (X) → 콘텐츠(contents)

☺**영보이 암기tip**) 아이스크림 많이 먹기 콘텐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역시 아이스크림은 월드콘이 제일이야. < 월드콘 - 콘텐츠 >

정답: 1

문 2. 밑줄 친 활용형 중 옳은 것은? (2020년 지방직 7급 A책형 문2)

- ① 식은 국을 따뜻하게 데서 먹었다.
- ② 아이가 소란을 퍼서 정신이 없다.
- ③ 어린이가 한시를 줄줄 왜서 놀랐다.
- ④ 나는 뜬눈으로 밤을 새서 너무 피곤하다.

정답 및 해설 (2020년 지방직 7급 A책형 문2)

- ① 식은 국을 따뜻하게 데서 먹었다.(X) → 데워서, 덥혀
 - ◆ 데우다: 식었거나 찬 것을 덥게 하다. < 활용: 데우어, 데워, 데우니 >
 - ◆ 덥히다: 사물의 온도를 높이다. ‘덥다’의 사동사 < 활용: 덥히어, 덥혀, 덥히니 >
- ② 아이가 소란을 퍼서 정신이 없다.(X) → 피워서
 - ◆ 피우다: (일부 명사와 함께 쓰여) 그 명사가 뜻하는 행동이나 태도를 나타내다.
< 활용: 피우어, 피워, 피우니 >

③ 어린이가 한시를 줄줄 왜서 놀랐다. (O)
 ◆ 외다: ‘외우다’의 준말. < 활용: 외어, 왜, 외니 >

- ④ 나는 뜬눈으로 밤을 새서 너무 피곤하다.(X) → 새워서
 - ◆ 새우다: 한숨도 자지 아니하고 밤을 지내다. < 활용: 새우어, 새워, 새우니 >

정답: 3

문 3. ㉠~㉣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2020년 지방직 7급 A책형 문3)

1900년대 이후로 다른 문자를 지양하고 한글로만 문자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이에 따라 각급 학교 교재에 한자는 괄호 안에 넣는 조치를 취했다.

㉡ 그 과정에서 그들이 가장 고심했던 일은 우리말 어휘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자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 한글학회의 큰사전 에서는 모든 단어의 표제어는 한글로 적었고 괄호 속에 한자, 로마자 등 다른 문자를 병기하였다.

㉣ 이로 인해 1930년대 이후에 우리 어문 연구가들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하고 표준어를 사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전 편찬 사업을 추진했다.

-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정답 및 해설 (2020년 지방직 7급 A책형 문3)

- ③ ㉣ - ㉡ - ㉢ - ㉠
 -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글귀로 글의 순서를 파악할 수 있다.

1900년대 이후로 다른 문자를 지양하고 한글로만 문자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이로 인해 1930년대 이후에 우리 어문 연구자들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하고 표준어를 사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전 편찬 사업을 추진했다.

㉡ 그 과정에서 그들이 가장 고심했던 일은 우리말 어휘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자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 한글학회의 『큰사전』에서는 모든 단어의 표제어는 한글로 적었고 괄호 속에 한자, 로마자 등 다른 문자를 병기하였다.

㉣ 이에 따라 각급 학교 교재에 한자는 괄호 안에 넣는 조치를 취했다. 정답: 3

문 4. ㉠, ㉡의 한자 표기로 옳은 것은? (2020년 지방직 7급 A책형 문4)

- ㉠간발의 차이로 비행기를 놓쳤다.
 그의 실력은 장인의 실력에 ㉡비견될 만하다.

- ㉠ ㉡ ㉠ ㉡ ㉠ ㉡ ㉠ ㉡
 ① 間髮 批腑 ② 簡拔 比房 ③ 間髮 比肩 ④ 簡拔 批腑

정답 및 해설 (2020년 지방직 7급 A책형 문4)

③ 間髮 比肩 (O)

1) 間髮(간발): 間(사이 간) 髮(터럭 발)

◆ 의미: 아주 잠시 또는 아주 적음을 이르는 말.

◆ 間髮(간발)은 '間(사이 간) 髮(터럭 발)'을 쓰는데, '間(사이 간)'은 '竹(대나무 죽)'이 없이 '間(사이 간)'그 자체만 쓰고, '髮(터럭 발)'에는 '彡(터럭 삼)'가 들어간다. < cf. 터럭: 사람이나 길짐승의 몸에 난 길고 굵은 털. >

☺**영보이 암기tip**) 동경 국제마라톤대회에서 이봉주 선수는 **터럭(彡: 터럭 삼)**만큼 間髮(간발)의 차이로 금메달을 놓치게 되었다.

2) 比肩(비견): 比(견줄 비) 肩(어깨 견, 여위고 약할 흔)

◆ 의미: 서로 비슷한 위치에서 견줄. 또는 견주어짐.

◆ 比肩(비견)은 '比(견줄 비) 肩(어깨 견)'을 쓰는데, '比(견줄 비)'는 '扌(손 수)'없이 '比(견줄 비)'그 자체만 쓰고 '肩(어깨 견)'에는 '戶(집 호)'와, '月(달 월)'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그 선비는 **달(月: 달 월)**동네 **집(戶: 집 호)**에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지만 달에 대한 자작시는 어느 사대부와 比肩(비견)할 만한 실력이 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

*다른 보기

1) 批腑(비부): 批(비평할 비) 腑(육부 부) < 이런 한자어는 없음. >

2) 簡拔(간발): 簡(대쪽 간, 간략할 간) 拔(뽑을 발, 무성할 패)

◆ 의미: 여러 사람 가운데 골라 뽑음.

3) 比房(비방): 比(견줄 비) 房(방 방) < 이런 한자어는 없음. >

정답: 3

문 5. 밑줄 친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노래한 것은? (2020년 지방직 7급 A책형 문5)

珠簾을 고터 짓고 玉階를 다시 쓸며
啓明星듯도록 곶초 안자 바라보니
白蓮花한가지를 뉘라셔 보내신고

- 정철, 관동별곡(關東別曲) 에서 -

- ① 구름 빗치 조타 하나 검기를 쥌 로 한다
 바람 소리 몹다 하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조코도 그출 뉘 업기논 물뿐인가 하노라
- ② 고즌 므스 일로 꿩머셔 쉬이 디고
 플은 어이하야 프르논 듯 누르누니
 아마도 변티 아닐슨 바회뿐인가 하노라
- ③ 나모도 아닌 거시 플도 아닌 거시
 곶기논 뉘 시기며 속은 어이 뷁연논다
 더러코 四時에 프르니 그를 도하하노라
- ④ 자근 거시 노피 떠셔 萬物을 다 비취니
 밤등의 光明이 너만하니 또 잇누냐
 보고도 말 아니 하니 내 벌인가 하노라

정답 및 해설 (2020년 지방직 7급 A책형 문5)

珠簾(주렴)을 고터 짓고 玉階(옥계)를 다시 쓸며 < 주렴(구슬 따위를 꿰어 만든 밧)을 다시 걷고 옥계(옥같이 고운 섬돌)를 다시 쓸며 >

啓明星(계명성) 듯도록 곶초 안자 바라보니 < 금성이 뜰 때까지 꽃꽂이 앉아 바라보니 >

白蓮花(백련화) 한가지를 뉘라셔 보내신고 < 흰 연꽃 같은 달을 누가 보내셨는가? >

◆ 白蓮花(백련화)는 ‘달’을 가리킨다.

◆ 정철의 『관동별곡』: 조선 선조 때에 송강 정철이 지은 기행 가사. 작자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관동 팔경을 돌아보면서 선정을 베풀고자 하는 심정을 읊은 것으로, 《송강가사》에 그 내용이 전한다.

◆ 윤선도의 『오우가』: 조선 인조 때에 윤선도가 지은 연시조.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달을 벗어 비유하여 노래한 것으로, 서장(序章)을 포함하여 모두 6수로 되어 있다. 《고산유고》 가운데 <산중신곡>에 실려 있다.

- ① 구름 빗치 조타 하나 검기를 쥌 로 한다 < 구름 빛이 깨끗하다고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
 바람 소리 몹다 하나 그칠 때가 많도다, < 바람 소리 많다 하나 그칠 때가 많도다, >
 조코도 그출 뉘 업기논 물뿐인가 하노라 < 맑고도 그칠 뉘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

◆ 윤선도의 시조 ‘오우가’로 ‘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② 고즌 므스 일로 꺾며셔 쉬이 디고 < 꽃은 무슨 까닭으로 피자마자 쉽게 지고 >
플은 어이햐야 프르논 듯 누르느니 < 풀은 어찌하여 푸른 듯하다가 이내 누른 빛으로 변하는가? >
아마도 변티 아닐손 바회뿐인가 흐노라 < 아마도 변치 않는 것은 바위뿐인가 아노라, >

◆ 윤선도의 시조 '오우가'로 '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③ 나모도 아닌 거시 풀도 아닌 거시 <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
꽃기논 뉘 시기며 속은 어이 뷔연논다 < 곧게 자라는 것은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찌 비었는가? >
더러코 四時에 프르니 그를 도하흐노라 < 저형고도 사철 늘 푸르니 그것을 좋아하노라, >

◆ 윤선도의 시조 '오우가'로 '대나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④ 자근 거시 노피 떠서 萬物을 다 비취니 < 작은 것이 높이 떠서 온 세상을 다 비추니 >
밤등의 光明이 너만흐니 또 잇느냐 < 밤중의 광명이 너만한 것이 또 있겠느냐 >
보고도 말 아니 흐니 내 변인가 흐노라 < 보고도 말을 아니 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

◆ 윤선도의 시조 '오우가'로 '달'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답: 4

문 6.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2020년 지방직 7급 A책형 문6)

생산량이나 소득처럼 겉보기에 가장 간단할 것 같은 경제학적 개념도 이끌어 내는 데 각종 어려움이 따른다. 거기에 수많은 가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생산량 통계에 가사 노동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한 예이다. 숫자 자체에 의미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생산량이나 소득 통계가 생활수준을 정확히 나타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특히, 가난한 나라보다 식량, 주거, 의료 서비스 등 기본적 필요를 충족한 상태인 부유한 나라들은 더욱 그렇다.

또 구매력, 노동 시간,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비금전적인 요인, 비합리적인 소비 행위, 위치재 등이 초래하는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행복측정 연구는 이런 문제들을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연구에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행복은 그 자체로 측정이 어렵다는 점과 다양한 선호의 문제가 개입된다는 점 때문이다. 행복은 가치의 영역으로서 그에 대해 부여하는 우리의 관념과 욕망, 선호의 지점이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요인 등 복잡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행복측정 연구와 같은 영역은 그 대상을 측정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

물론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경제학에서 숫자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생산량, 성장률, 실업률, 불평등 수준 등에 관한 주요 숫자를 모르고서는 우리는 실제 세계의 경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 숫자들이 무엇을 말해 주고, 무엇을 말해 주지 않는지를 항상 명심해야 한다.

- ① 행복측정 연구에서 측정의 어려움은 선호의 문제로 보완될 수 있다.
- ②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가난한 나라보다 부유한 나라에서 더 어렵다.
- ③ 가치 판단은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학적 개념을 추출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 ④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숫자는 객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2020년 지방직 7급 A책형 문6)

① 행복측정 연구에서 측정의 어려움은 선호의 문제로 보완될 수 있다.
◆ ‘행복은 가치의 영역으로서 그에 대해 부여하는 우리의 관념과 욕망, 선호의 지점이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요인 등 복잡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행복측정 연구와 같은 영역은 그 대상을 측정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로 보아 행복측정 연구에서 선호의 문제로 측정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완될 수 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②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가난한 나라보다 부유한 나라에서 더 어렵다.(O)

◆ ‘특히, 가난한 나라보다 식량, 주거, 의료 서비스 등 기본적 필요를 충족한 상태인 부유한 나라들은 더욱 그렇다.’로 보아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가난한 나라보다 부유한 나라에서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③ 가치 판단은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학적 개념을 추출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 가치판단은 측정이 어렵지만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숫자는 객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물론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경제학에서 숫자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생산량, 성장률, 실업률, 불평등 수준 등에 관한 주요 숫자를 모르고서는 우리는 실제 세상의 경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로 보아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숫자가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한 부분은 찾을 수 없으며 실제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알아야 한다.

정답: 2

문 7. 밑줄 친 한자어를 고쳐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년 지방직 7급 A책형 문7)

- ① 우리 시에서는 그 안건을 부의(附議)하겠다고 밝혔다.
→ 우리 시에서는 그 안건을 토의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 ② 당국은 불법 점유 토지를 명도(明渡)하라고 지시했다.
→ 당국은 불법 점유 토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 ③ 우리 조합은 주민들에게 동의서 징구(徵求)를 결정했다.
→ 우리 조합은 주민들에게 동의서 제출 요구를 결정했다.
- ④ 이 기업은 상여금을 임금에 산입(算入)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 이 기업은 상여금을 임금에 포함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정답 및 해설 (2020년 지방직 7급 A책형 문7)

① 우리 시에서는 그 안건을 부의(附議)하겠다고 밝혔다.
→ 우리 시에서는 그 안건을 토의에 부치겠다고 밝혔다.(O)
◆ 부의(附議): 토의에 부침. < 附(붙을 부) 議(의논할 의) >

- ② 당국은 불법 점유 토지를 명도(明渡)하라고 지시했다.
→ 당국은 불법 점유 토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라고 지시했다.(X)
◆ 명도(明渡): 건물, 토지, 선박 따위를 남에게 주거나 맡김. 또는 그런 일. < 明(밝을 명) 渡(건널 도) >
◆ 적절한 표현: 당국은 불법 점유 토지를 (주인에게) **넘겨주라고** 지시했다.

- ③ 우리 조합은 주민들에게 동의서 징구(徵求)를 결정했다.
→ 우리 조합은 주민들에게 동의서 제출 요구를 결정했다.(O)
◆ 징구(徵求): 돈, 곡식 따위를 내놓으라고 요구함. < 徵(부를 징) 求(구할 수) >
④ 이 기업은 상여금을 임금에 산입(算入)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 이 기업은 상여금을 임금에 포함할 것인지를 논의했다.(O)
◆ 산입(算入): 셈하여 넣음. < 算(셈 산) 入(들 입) >

정답: 2

문 8. 다음 글에서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년 지방직 7급 A책형 문8)

현재 약 7,000개의 언어가 있지만, 그 본질은 다르지 않다. 인간이 언어를 가지게 된 것이 대략 6만 년 전인데, 그동안 많은 언어가 분기하고 사멸하였다. 오늘날의 모든 언어는 나름대로 특별한 역사를 갖는다. 언어는 살아 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개별 언어들은 발음과 규칙, 그리고 의미의 세밀한 변화를 현재 진행형으로 겪고 있다. 또한 '피진(pidgin)'과 같이 의사소통의 편의를 위해 급조된 언어도 있는데, 이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후대는 자연스럽게 '크리올(creole)'과 같은 새로운 언어를 탄생시키기도 한다. 피진과 크리올은 비교적 근래에 형성된 것이므로 그 변화의 역사적 과정을 살필 수 있다. 이를 통해 고대의 언어들이 명멸하는 과정도 이와 유사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언어 중에는 영어와 같이 국제적으로 세력을 얻어 글로벌 시대에 의사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는 언어도 있다. 이러한 언어들을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라고 부른다. 과거에 서양에서는 그리스어나 라틴어가, 동양에서는 한자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글로벌 사회에서는 미디어나 교통수단의 발달에 힘입어 현재의 국제 통용어로 사용되는 영어가 과거의 국제 통용어들보다 훨씬 많은 힘을 발휘하고 있다.

- ① 교류와 소통이 증가하면 언어의 분기와 사멸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② 그리스어나 라틴어는 서양의 다른 언어보다 발음, 규칙, 의미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
③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강한 나라가 등장하면 그 나라의 언어가 링구아 프랑카가 될 수 있다.
④ '어리다'의 의미가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적다'로 변화한 것은 피진에서 크리올로 변화한 사례이다.

정답 및 해설 (2020년 지방직 7급 A책형 문8)

- ① 교류와 소통이 증가하면 언어의 분기와 사멸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X)
 ◆ ‘지금과 같은 글로벌 사회에서는 미디어나 교통수단의 발달에 힘입어 현재의 국제 통용어로 사용되는 영어가 과거의 국제 통용어들보다 훨씬 많은 힘을 발휘하고 있다.’로 보아 교류와 소통이 증가하면 언어의 분기와 사멸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 ② 그리스어나 라틴어는 서양의 다른 언어보다 발음, 규칙, 의미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X)
 ◆ 그리스어나 라틴어가 글로벌 시대에 의사소통의 가교 역할을 한다고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오히려 ‘언어는 살아 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개별 언어들은 발음과 규칙, 그리고 의미의 세밀한 변화를 현재 진행형으로 겪고 있다.’로 보아 그리스어나 라틴어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게 더 적절하다.

③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강한 나라가 등장하면 그 나라의 언어가 링구아 프랑카가 될 수 있다.(O)
 ◆ ‘언어 중에는 영어와 같이 국제적으로 세력을 얻어 글로벌 시대에 의사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는 언어도 있다. 이러한 언어들을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라고 부른다.’로 보아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강한 나라가 등장하면 그 나라의 언어가 링구아 프랑카가 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 ④ ‘어리다’의 의미가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적다’로 변화한 것은 피진에서 크리올로 변화한 사례이다.(X)
 ◆ ‘어리다’의 의미가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적다’로 변화한 것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의미가 바뀐 언어의 역사성과 관계가 있다고 한국어에서 나온 단어이다. ‘피진(pidgin)과 같이 의사소통의 편의를 위해 급조된 언어도 있는데, 이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후대는 자연스럽게 크리올(creole)과 같은 새로운 언어를 탄생시키기도 한다.’로 보아 ‘피진’과 ‘크리올’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와 같은 언어 명칭이다. 정답: 3

문 9. ㉠~㉣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년 지방직 7급 A책형 문9)

㉠ 식용유 ㉡ 헛걸음 ㉢ 안팎일 ㉣ 입학생

- ① ㉠과 ㉣은 각각 음운의 첨가가 나타난다.
 ② ㉠과 ㉣은 각각 음운 변동 전과 후의 음운 개수가 같다.
 ③ ㉡과 ㉣은 각각 음운의 대치가 나타난다.
 ④ ㉡과 ㉣은 같은 유형의 음운 변동이 있다.

정답 및 해설 (2020년 지방직 7급 A책형 문9)

- ① ㉠과 ㉣은 각각 음운의 첨가가 나타난다.(O)
 ◆ ㉠ 식용유[시공뉴]: 음운의 첨가(‘ㄴ’첨가)
 ◆ ㉣ 안팎일[안팡닐]: 음운의 대치(ㅍ→ㅇ), 음운의 첨가(‘ㄴ’첨가)

② ㉠과 ㉡은 각각 음운 변동 전과 후의 음운 개수가 같다. (X) → 다르다

- ◆ ㉠ 식용유: ㅅ, ㅣ, ㄱ, ㅛ, ㅇ, ㅍ (6개)
 [시공뉴]: ㅅ, ㅣ, ㄱ, ㅛ, ㅇ, ㄴ, ㅍ (7개)
- ◆ ㉡ 입학생: ㅣ, ㅂ, ㅎ, ㅏ, ㄱ, ㅅ, ㅍ, ㅇ (8개)
 [이팍쌩]: ㅣ, ㅍ, ㅏ, ㄱ, ㅍ, ㅍ, ㅇ (7개)

③ ㉢과 ㉣은 각각 음운의 대치가 나타난다.(O)

- ◆ 대치: 한 음소가 다른 음소로 바뀌는 음운 현상
- ◆ ㉢ 헛걸음[현꺼름]: ‘ㅅ’이 [ㄷ]으로 대치, ‘ㄱ’이 [ㄱ]으로 대치
- ◆ ㉣ 안팍일[안팡닐]: ‘ㄱ’이 [ㅇ]으로 대치

④ ㉤과 ㉥은 같은 유형의 음운 변동이 있다.(O)

- ◆ ㉤ 헛걸음[현꺼름]: ‘ㅅ’이 [ㄷ]으로 대치, ‘ㄱ’이 [ㄱ]으로 대치
- ◆ ㉥ 입학생[이팍쌩]: ‘ㅂ’과 ‘ㅎ’결합으로 ‘ㅍ’으로 축약, ‘ㅅ’이 [ㅍ]으로 대치

정답: 2

문 10. 밑줄 친 단어가 바르게 쓰인 것은? (2020년 지방직 7급 A채형 문10)

- ① 그는 평생 호의호식을 하며 지냈다.
- ② 그는 환골탈퇴의 자세로 새 일에 임했다.
- ③ 부모님은 주야장창으로 자식 걱정뿐이다.
- ④ 산수갑산을 가는 한이 있어도 그 일은 꼭 하고 싶다.

정답 및 해설 (2020년 지방직 7급 A채형 문10)

① 그는 평생 호의호식을 하며 지냈다.(O)

- ◆ 호의호식(好衣好食):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음.

② 그는 환골탈퇴의 자세로 새 일에 임했다.(X) → 환골탈태(換骨奪胎)

- ◆ 환골탈태(換骨奪胎): 뼈대를 바꾸어 끼고 태를 바꾸어 쓴다는 뜻으로, 고인의 시문의 형식을 바꾸어서 그 짜임새와 수법이 먼저 것보다 잘되게 함을 이르는 말. 중국 남송의 승려 혜홍(惠洪)의 <냉재야화(冷齋夜話)>에 나오는 말이다. / 사람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하여 전혀 딴사람처럼 됨.
- ☺**영보이 암기tip**) 환골탈태(換骨奪胎)라고 하지만 쾅거루의 태아(胎芽)는 세상 밖으로 나오면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 < 환골탈태 - 태아 >

③ 부모님은 주야장창으로 자식 걱정뿐이다.(X) →주야장천(晝夜長川)

- ◆ 주야장천(晝夜長川): 밤낮으로 쉬지 아니하고 연달아.
- ☺**영보이 암기tip**) 자식이 청계천(淸溪川)에서 잘살지라도 부모님은 주야장천 자식 걱정뿐이다. < 청계천 - 주야장천 >

④ 산수갑산을 가는 한이 있어도 그 일은 꼭 하고 싶다.(X) → **삼수갑산(三水甲山)**
 ◆ 삼수갑산(三水甲山)에 가는 한이 있어도: 자신에게 닥쳐올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라도 어떤 일을 단행할 때 하는 말. <동의 속담> ‘삼수갑산을 가서 산전을 일귀 먹더라도’
 ◆ 삼수갑산(三水甲山): 우리나라에서 가장 험한 산골이라 이르던 삼수와 갑산. 조선 시대에 귀양지의 하나였다.
 ☺**영보이 암기tip** **삼수갑산(三水甲山)**에 가는 한이 있어도 수능 **삼수**는 하지 않겠다.
 < **삼수갑산 - 수능 삼수** > 정답: 1

문 11. 밑줄 친 어구와 같은 뜻의 한자 성어는? (2020년 지방직 7급 A책형 문11)

이생(李生)은 그 이후로 인간사에 게을러져 친척과 빈객의 길흉사가 있어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다. 늘 아내 최씨(崔氏)와 더불어 시를 주고받으며 사이좋게 지냈다.
 - 김시습,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 에서 -

- ① 琴瑟相和 ② 女必從夫 ③ 談笑自若 ④ 男負女戴

정답 및 해설 (2020년 지방직 7급 A책형 문11)

◆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 김시습이 지은 전기(傳奇) 소설. 이생이 부모의 허락을 얻어 몰래 만나던 최랑(崔娘)과 혼인을 하지만 흥건적의 무리가 최랑을 죽이는 바람에 현세에서의 사랑을 다하지 못하여 최랑을 지극히 생각하다가 병이 들어 죽는다는 내용으로, <금오신화>에 실려 있다.
 ◆ 금오신화(金鰲新話): 조선 세조 때에 김시습이 지은 한문 소설.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로, <남염부주지>,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용궁부연록>, <취유부벽정기>의 5편의 작품이 전한다.

① 琴瑟相和(금슬상화): 琴(거문고 금) 瑟(큰 거문고 슬) 相(서로 상, 빌 양) 和(화할 화)
 ◆ 의미: 금(琴)과 슬(瑟)이 합주하여 화음(和音)이 조화되는 것같이 부부 사이가 다정하고 화목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女必從夫(여필종부): 女(여자 여(녀)) 必(반드시 필) 從(좃을 종) 夫(지아비 부)
 ◆ 의미: 아내는 반드시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말.

③ 談笑自若(담소자약): 談(말씀 담) 笑(웃음 소) 自(스스로 자) 若(갈을 약, 반야 야)
 ◆ 의미: 근심이나 놀라운 일을 당하였을 때도 보통 때와 같이 웃고 이야기함.

④ 男負女戴(남부여대): 男(사내 남) 負(질 부) 女(여자 여(녀)) 戴(일 대)
 a)의미: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인다는 뜻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다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유의어 < 조진모초, 풍찬노숙, 동가식서가숙, 문전결식, 즐풍목우 >**
 1) 朝秦暮楚(조진모초): 朝(아침 조) 秦(나라 이름 진) 暮(저물 모) 楚(초나라 초)
 a)의미: 아침에는 북쪽의 진나라에서 저녁에는 남쪽의 초나라에서 거처한다는 뜻으로, 일정한 주소가 없이 유랑하거나 이편에 붙었다 저편에 붙었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風餐露宿(풍찬노숙): 風(바람 풍) 餐(밥 찬) 露(이슬 노(로)) 宿(잘 숙)
 a)의미: 바람을 먹고 이슬에 잠잔다는 뜻으로, 객지에서 많은 고생을 겪음을 이르는 말.
 3) 東家食西家宿(동가식서가숙): 동쪽 집에서 밥 먹고 서쪽 집에서 잠잔다는 뜻으로,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며 지냄을 이르는 말. 나중에는 자기의 잇속을 차리기 위하여 지조 없이 여기저기 빌붙어 사는 행태를 이르게 되었다.
 4) 門前乞食(문전걸식): 門(문 문) 前(앞 전) 乞(빌 걸) 食(밥 식/먹을 식)
 a)의미: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빌어먹음.
 5) 櫛風沐雨(즐풍목우): 櫛(빗 즐) 風(바람 풍) 沐(머리 감을 목) 雨(비 우)
 a)의미: 머리털을 바람으로 빗질하고 몸은 빗물로 목욕한다는 뜻으로, 오랜 세월을 객지에서 방랑하며 온갖 고생을 다 함을 이르는 말.

정답: 1

문 12.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년 지방직 7급 A책형 문12)

○ 제목: 인터넷 범죄 증가의 원인
 1. 국가적 측면: (㉠) 때문에 인터넷 범죄를 처벌하는 관련 규정이 신속하게 제정되지 않는다.
 2. 개인적 측면
 (1) (㉡) 때문에 개인 컴퓨터의 백신 프로그램 설치가 미흡하다.
 (2) (㉢)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개인 신상 정보 취급이 소홀하게 다루어진다.
 3. 기술적 측면: (㉣) 때문에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다.

- ① ㉠: 인터넷 범죄 처벌 규정의 제정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기
- ② ㉡: 인터넷 사용 시 백신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 ③ ㉢: 자신의 개인 정보는 범죄에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기
- ④ ㉣: 컴퓨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정답 및 해설 (2020년 지방직 7급 A책형 문12)

- ① ㉠: 인터넷 범죄 처벌 규정의 제정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기 (O)
 ◆ 국가적 측면: (㉠ 인터넷 범죄 처벌 규정의 제정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인터넷 범죄를 처벌하는 관련 규정이 신속하게 제정되지 않는다.
- ② ㉡: 인터넷 사용 시 백신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O)
 ◆ (㉡ 인터넷 사용 시 백신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컴퓨터의 백신 프로그램 설치가 미흡하다.
- ③ ㉢: 자신의 개인 정보는 범죄에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기 (O)
 ◆ (㉢ 자신의 개인 정보는 범죄에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개인 신상 정보 취급이 소홀하게 다루어진다.
- ④ ㉣: 컴퓨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X) → 컴퓨터 보안에 대한 안전 불감증

- ◆ 컴퓨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인프라와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 개발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적절한 문장으로 바꾸어 보자면 다음과 같다.
- ◆ (㉔ 컴퓨터 보안에 대한 안전 불감증) 때문에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다.

정답: 4

문 13.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년 지방직 7급 A책형 문13)

금융 회사와 은행 상당수가 파랑을 상징색으로 쓰고 있다. 파랑의 긍정적 속성에는 정직과 신뢰가 있다. 파랑을 사용한 브랜드는 친근성과 전문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파랑은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선호하는 색이다. 파랑은 소통의 색으로서 소셜 미디어와 잘 어울린다.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의 색을 생각해 보라. 파랑을 상징색으로 사용한 브랜드가 파랑의 긍정적인 가치로 드러날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차갑고 불친절하고 무심한 느낌의 부정적인 가치로 나타나기도 한다.

파랑은 기업의 단체복에 자주 사용한다. 약간 어두운 톤의 파란색은 친근하고 진지하며 품위 있는 분위기를 전달한다. 어두운 파란색 단체복은 약간의 보수성과 전통을, 밝은 파란색 단체복은 친근한 소통과 창의적인 사고를 표현한다. 이 색은 교복에도 적합하다. 톤을 잘 선택하면 파랑은 집중에 도움을 주고 차분하게 해 주며 활발한 토론과 의견 교환에 도움을 준다.

- ① 브랜드의 로고를 만들 때 색이 주는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 ②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브랜드에 파란색을 써서 성공한 것은 우연한 선택의 결과로 봐야 한다.
- ③ 색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색이 주는 긍정적 속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
- ④ 색의 톤에 따라 전달하는 분위기가 다르니, 인테리어에 쓸 때 파랑이 지닌 다양한 톤을 알아봐야 한다.

정답 및 해설 (2020년 지방직 7급 A책형 문13)

- ① 브랜드의 로고를 만들 때 색이 주는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O)
 - ◆ ‘파랑을 상징색으로 사용한 브랜드가 파랑의 긍정적인 가치로 드러날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차갑고 불친절하고 무심한 느낌의 부정적인 가치로 나타나기도 한다.’로 보아 브랜드의 로고를 만들 때 색이 주는 효과를 고려해야 함을 추론할 수 있다.

- ②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브랜드에 파란색을 써서 성공한 것은 우연한 선택의 결과로 봐야 한다.(X)
 - ◆ ‘파랑은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선호하는 색이다.’로 보아 우연한 선택이 아니라 테크놀로지 업계는 파란색을 선호한다.

- ③ 색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색이 주는 긍정적 속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O)
 - ◆ ‘파랑을 상징색으로 사용한 브랜드가 파랑의 긍정적인 가치로 드러날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차갑고 불친절하고 무심한 느낌의 부정적인 가치로 나타나기도 한다.’

로 보아 색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색이 주는 긍정적 속성을 잘 파악해야 함을 추론할 수 있다.

④ 색의 톤에 따라 전달하는 분위기가 다르니, 인테리어에 쓸 때 파랑이 지닌 다양한 톤을 알아봐야 한다.(O)

◆ ‘약간 어두운 톤의 파란색은 친근하고 진지하며 품위 있는 분위기를 전달한다. 어두운 파란색 단체복은 약간의 보수성과 전통을, 밝은 파란색 단체복은 친근한 소통과 창의적인 사고를 표현한다.’로 보아 색의 톤에 따라 전달하는 분위기가 다르니, 인테리어에 쓸 때 파랑이 지닌 다양한 톤을 알아봐야 함을 추론할 수 있다.

정답: 2

문 14. 다음 발화에 나타난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년 지방직 7급 A책형 문14)

신어(新語)에 대해 말할 때, 보통 유행어나 비속어, 은어와 같은 한정된 대상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어 연구의 대상은 특정한 범주의 언어, 소수 집단의 언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전문 용어는 의사소통의 효율성이나 교육적 목적을 위해 순화된 신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상당수의 전문 용어는 신어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좌창(瘞瘡)’이라는 의학 용어를 대체한 ‘여드름’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전문 분야에서도 신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와 같은 신어는 전문 용어의 순화에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어 연구가 단지 새로운 어휘와 몇 가지 주제를 나열하는 연구를 넘어서 한국어 조어론 전반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어의 영역은 대중이 생산하는 ‘자연 발생적 신어’의 영역과 더불어 ‘인위적인 신어’의 영역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 ① 신어에서 비속어나 은어가 빠져야 한다.
- ② 신어는 연구 대상과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 ③ 자연 발생적인 신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 ④ 신어는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위해 그 범주를 특정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2020년 지방직 7급 A책형 문14)

① 신어에서 비속어나 은어가 빠져야 한다.(X)

◆ ‘신어(新語)에 대해 말할 때, 보통 유행어나 비속어, 은어와 같은 한정된 대상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어 연구의 대상은 특정한 범주의 언어, 소수 집단의 언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로 보아 신어에는 비속어나 은어가 포함됨을 알 수 있다.

② 신어는 연구 대상과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O)

◆ ‘신어 연구가 단지 새로운 어휘와 몇 가지 주제를 나열하는 연구를 넘어서 한국어 조어론 전반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로 보아 신어는 연구 대상과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③ 자연 발생적인 신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X)

◆ ‘신어의 영역은 대중이 생산하는 ‘자연 발생적 신어’의 영역과 더불어 ‘인위적인 신어’의 영역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로 보아 신어는 연구 대상과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어'의 영역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로 보아 '자연 발생적 신어'의 영역과 더불어 '인위적 인 신어' 모두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④ 신어는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위해 그 범주를 특정해야 한다.(X)

◆ '신어 연구가 단지 새로운 어휘와 몇 가지 주제를 나열하는 연구를 넘어서 한국어 조어론 전반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로 보아 신어는 그 범주를 특정하지 않고 한국어 조어론 전반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정답: 2

문 15. 다음 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년 지방직 7급 A책형 문15)

열 두 째 김도 길사 설흔 날 지리(支離)하다. 옥창(玉窓)에 심근 매화(梅花) 몇 번이나 피여진고. 겨울 밤 차고 찬 제 자최는 셋거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구즌 비는 므스 일고. 삼춘 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景物)이 시름업다. 가을 들 방에 들고 실솔(蟋蟀)이 상(床)에 올 제, 긴 한숨 디는 눈물 속절 업시 험만 만타.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도로혀 풀쳐 헤니 이리 하여 어이 허리. 청등(靑燈)을 돌라 노코 녹기금(綠綺琴) 빛기 안아, 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 조차 셋거 타니, 소상(瀟湘) 야우(夜雨)의 댕소리 섯도논 듯, 화표(華表) 천년(千年)의 별학(別鶴)이 우니는 듯,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手段) 넷 소래 잇다마논, 부용장(芙蓉帳) 적막(寂寞)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 간장(肝腸)이 구곡(九曲)되야 구빅구빅 쓴쳐서라. 출하리 잠을 드러 쉼(의나 보려) 하니, 바람의 디는 님과 풀 속에 우는 즘생, 므스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오논다. 천상(天上)의 견우 직녀(牽牛織女) 은하수(銀河水) 막혀서도, 칠월 칠석(七月七夕) 일년 일도 (一年一度) 실기(失期)치 아니거든, 우리 님 가신 후는 무슨 약수(弱水) 가렛관디, 오거나 가거나 소식(消息)조차 쓰쳤는고. 난간(欄干)의 비겨 셔서 님 가신 디 바라보니, 초로(草露)는 맏쳐 잇고 모운(暮雲)이 디나 갈 제, 죽림(竹林) 푸른 고디 새 소리 더욱 설다. 세상의 서룬 사람 수업다 허려니와, 박명(薄命)훈홍안(紅顏)이야 날 가트니 쯔 이실가.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살동말동 하여라.

- 규원가(閨怨歌)에서 -

- ① 시간 변화를 통해 슬픔과 기쁨의 감정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②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 심정을 자연물에 의탁해서 드러내고 있다.
- ③ 자신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의 원인을 연인과의 이별에서 찾고 있다.
- ④ 운명에 순응하여 힘든 결혼 생활을 견뎌 온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정답 및 해설 (2020년 지방직 7급 A책형 문15)

◆ 규원가(閨怨歌): 조선 중기에 허난설헌이 지은 규방 가사.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규방에서 속절없이 눈물과 한숨으로 늙어 가는 여인의 애처로운 정한(情恨)을 노래하였다. 일설에는 허균의 첩인 무옥이 지었다고도 한다.

◆ 현대어 해석: 하루가 길기도 길다, 서룬 날이 지루하다, 규방 앞에 심은 매화는 몇 번이나 피었다 졌는가? 겨울 밤 차고 찬 때는 진눈깨비 섞어 내리고, 여름날 길고 긴 때 굶은비는 무슨 일인가? 봄날에 온갖 꽃이 피고 버들잎 돌아나기 좋은 시절에 아름다운 경치를 보아도 아무런 생각이 없다, 가을 달빛이 방 안을 비추 들

어오고 귀뚜라미 침상에서 올 때, 긴 한숨에 떨어지는 눈물 어찌할 수 없이 생각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도다. 돌이켜 여러 일을 생각해보니 이렇게 살아서 어이 하리? 푸른 등불을 돌려놓고 푸른색으로 꾸민 거문고를 비스듬히 안아 백련화 한 곡조를 시름에 잠겨 연주하니, 소상강 밤비에 댓잎 소리가 섞여서 들리는 듯, 망주석(묘 앞에 세우는 문)에 천 년 만에 찾아온 특별한 학이 우는 듯, 고운 손으로 타는 솜씨는 옛 가락은 아직 남아 있다마는, 부용장(부용을 그리거나 수놓은 방장)이 적막하니 누구의 귀에 들리겠는가? 구곡간장(시름이 쌓인 마음속)이 끊어질듯 슬프구나,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서나 임을 보려하는데,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서 우는 벌레는 무슨 일로 원수가 되어 잠조차 깨우는 것인가? 하늘의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가 막혔어도, 칠월 칠석 일 년에 한 번은 때를 어기지 않고 만나는데, 우리 임 가신 후는 무슨 약수(장애물)가 가렸기에, 오고 가는 소식조차 그쳤는가? 난간에 기대어 서서 임 가신 데 바라보니, 풀에 이슬이 맺혀 있고 저녁 구름이 지나갈 때, 대나무 숲이 무성한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서럽다.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없이 많겠지만 복이 없는 운명의 젊은 여자가 나 같은 사람 또 있을까? 아마도 이 임의 탓으로 살 듯 말 듯 하여라.

① 시간 변화를 통해 슬픔과 기쁨의 감정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X)

◆ 이별의 상황에 서러워할 뿐 기쁨의 표현은 나와있지 않다.

②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 심정을 자연물에 의탁해서 드러내고 있다.(O)

◆ 귀뚜라미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자신이 처한 이별의 상황과 그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③ 자신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의 원인을 연인과의 이별에서 찾고 있다.(X)

◆ 차별과 억압은 나와 있지 않다.

④ 운명에 순응하여 힘든 결혼 생활을 견뎌 온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X)

◆ 이별에 대해 슬퍼할 뿐 힘든 결혼 생활을 견뎌 온 것에 대해 자부심은 나타나 있지 않다.

정답: 2

문 16.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년 지방직 7급 A책형 문16)

우리 헌법에는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명시적으로 개별적인 기본권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삶에 필요한 자유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모두 구체적인 이름을 띠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런 이유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될 자유도 헌법상 보장되는 장치를 할 필요가 있어서 헌법 제37조 제1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 걸쳐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자유는 무한하지도 않고, 방임도 아니다. 이런 자유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이 규율하는 공동체 질서 내에서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공동체의 존속, 안전, 평화, 그리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도 이러한 범위에서 제한을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가치들이 있기에 국민의 자유가 마음대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가치에 의해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되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 ① 인간의 자유는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유할 수 있다.
- ② 헌법 제37조 제1항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에 대해서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③ 헌법에 명시된 자유 외에 새롭게 발견하게 될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한다.
- ④ 자유는 무한하지도 않고, 방임도 아니므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이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정답 및 해설 (2020년 지방직 7급 A책형 문16)

- ① 인간의 자유는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유할 수 있다.
 - ◆ ‘이런 자유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로 보아 인간의 자유는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유할 수 있다.
- ② 헌법 제37조 제1항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에 대해서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 ‘인간이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될 자유도 헌법상 보장되는 장치를 할 필요가 있어서 헌법 제37조 제1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 걸쳐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로 보아 헌법 제37조 제1항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에 대해서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③ 헌법에 명시된 자유 외에 새롭게 발견하게 될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한다.
 -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가치들이 있기만 하면 국민의 자유가 마음대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가치에 의해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되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로 보아 헌법에 명시된 자유 외에 새롭게 발견하게 될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한다.
- ④ 자유는 무한하지도 않고, 방임도 아니므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이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X)
 - ◆ ‘하지만 인간의 삶에 필요한 자유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모두 구체적인 이름을 띠고 있을 수는 없다.’로 보아 구체적인 이름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

정답: 4

문 17. ㉠~㉣의 문맥적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년 지방직 7급 A책형 문17)

당신의 손끝만 스쳐도 소리 없이 열릴 돌문이 있습니다. 못사람이 조바심치나 굳이 달힌 이 돌문 안에는, 석벽 난간 열두 층계 위에 이제 ㉠검푸른 이끼가 앉았습니다.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는, 길이 꺼지지 않을 ㉡촛불 한 자루도 간직하였습니다. 이는 당신의 그리운 얼굴이 이 희미한 불 앞에 어리울 때까지는, 천년이 지나도 눈 감지 않을 저의 슬픈 영혼의 모습입니다.

길숨한 속눈썹에 향시 어리운 이 두어 방울 이슬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남긴 푸른 도포 자락으로 이 눈썹을 씻으십니까? 두 불은 옛날 그대로 복사꽃빛이지만, 한숨에 절로 입술이 푸르러 감을 어찌하니까?

몇 만 리 굽이치는 강물을 건너와 당신의 따스 손길이 저의 흰 목덜미를 어루만질 때, 그때야 저는 자취도 없이 ㉠한 줌 티끌로 사라지겠습니다. 어두운 밤 하늘 허공 중천에 바람처럼 사라지는 저의 옷자락은, 눈물 어린 눈이 아니고는 보이지 못하오리다.

여기 돌문이 있습니다. 원한도 사무칠 양이면 지극한 정성에 ㉡열리지 않는 돌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다시 천년토록 앉아 기다리라고, 슬픈 비바람에 날아 가는 돌문이 있습니다.

- 조지훈, 『석문』 -

- ① ㉠: 입에 대한 오랜 기다림
- ② ㉡: 입에 대한 변하지 않는 사랑
- ③ ㉢: 기약할 수 없는 입에 대한 체념
- ④ ㉣: 입에 대한 사무치는 원한

정답 및 해설 (2020년 지방직 7급 A책형 문17)

당신의 손끝만 스쳐도 소리 없이 열릴 돌문이 있습니다. 못사람이 조바심치나 굳이 달힌 이 돌문 안에는, 석벽 난간 열두 층계 위에 이제 ㉠검푸른 이끼가 앉았습니다.

< 당신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오랜 기다림 >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는, 길이 꺼지지 않을 ㉡촛불 한 자루도 간직하였습니다. 이는 당신의 그리운 얼굴이 이 희미한 불 앞에 어리울 때까지는, 천년이 지나도 눈 감지 않을 저의 슬픈 영혼의 모습입니다.

<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사랑 >

길숨한 속눈썹에 향시 어리운 이 두어 방울 이슬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남긴 푸른 도포 자락으로 이 눈썹을 씻으십니까? 두 불은 옛날 그대로 복사꽃빛이지만, 한숨에 절로 입술이 푸르러 감을 어찌하니까?

< 당신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쌓인 한 >

몇 만 리 굽이치는 강물을 건너와 당신의 따스 손길이 저의 흰 목덜미를 어루만질 때, 그때야 저는 자취도 없이 ㉢한 줌 티끌로 사라지겠습니다. 어두운 밤 하늘 허공 중천에 바람처럼 사라지는 저의 옷자락은, 눈물 어린 눈이 아니고는 보이지 못하오리다.

< 당신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절개와 다짐 >

여기 돌문이 있습니다. 원한도 사무칠 양이면 지극한 정성에 ㉣열리지 않는 돌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다시 천년토록 앉아 기다리라고, 슬픈 비바람에 날아 가는 돌문이 있습니다.

< 원한이 사무치기 전에 당신이 내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

- ① ㉠: 입에 대한 오랜 기다림(0)

② ㉠: 입에 대한 변하지 않는 사랑(O)

③ ㉡: 기약할 수 없는 입에 대한 체념(X) → 끝까지 절개를 지키겠다는 의지

④ ㉢: 입에 대한 사무치는 원한(O)

정답: 3

문 18.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년 지방직 7급 A책형 문18)

작은 산골 간이역에서 제시간에 정확히 도착하는 완행열차를 보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
 님을 익히 알고 있는 탓이다. 더구나 오늘은 눈까지 내리고 있지 않은가. …(중략)…
 지금 대합실에 남아 있는 사람은 모두 다섯이다. 한가운데에 툽밥 난로가 놓여 있고 그 주
 위로 세 사람이 달라붙어 있다. 출감한 지 며칠이 지났건만 사내는 감방 밖에서 보낸 그간
 의 시간이 오히려 꿈처럼 현실감이 없다. 사내는 출감 후부터 자꾸만 무엇인가 대단히 커
 다란 것을 빼앗겼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감방 안에서 사내는 손바닥 안에 움켜쥔
 모래알이 빠져나가듯 하릴없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자기 몫의 삶의 부피를 안타깝게 저울
 질해 보곤 했었다. …(중략)… 대학생에겐 삶은 이 세상과 구별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스물넷의 나이인 그에게는 세상 돌아가는 내력을 모르고, 아니 모른 척하고 산다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삶은 잠이다. 마취 상태에 빠져 흘러보내는 시간일 뿐이라고
 청년은 믿고 있다. 하지만 그는 얼마 전부터 그런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걸 느
 끼고 있다. 유치장에서 보낸 한 달 남짓한 기억과 퇴학, 끌어오르는 그들의 신념과는 아랑
 곳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실 밖의 질서……그런 것들이 자꾸만 청년의 시야를 어지럽
 히고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 임철우, 『사평역』에서 -

- ① 등장인물들의 과거 삶이 순탄치 않았음을 보여 준다.
- ② 등장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없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 ③ 대합실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상황을 그리고 있다.
- ④ 등장인물들의 구체적인 행위가 객관적으로 기술되고 있다.(X)

정답 및 해설 (2020년 지방직 7급 A책형 문18)

- ① 등장인물들의 과거 삶이 순탄치 않았음을 보여 준다.(O)
 ◆ ‘출감한 지 며칠이 지났건만 사내는 감방 밖에서 보낸 그간의 시간이 오히려 꿈처럼
 현실감이 없다.’로 보아 감방에서 고생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등장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없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O)
 ◆ 위 글은 등장인물들 사이의 갈등은 없고 그저 사내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 ③ 대합실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상황을 그리고 있다.(O)
 ◆ ‘지금 대합실에 남아 있는 사람은 모두 다섯이다. 한가운데에 툽밥 난로가 놓여 있고
 그 주위로 세 사람이 달라붙어 있다.’로 보아 대합실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상황
 을 그리고 있다.

④ 등장인물들의 구체적인 행위가 객관적으로 기술되고 있다.(X)

◆ ‘작은 산골 간이역에서 제시간에 정확히 도착하는 완행열차를 보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님을 익히 알고 있는 탓이다. 더구나 오늘은 눈까지 내리고 있지 않은가. ~ 출감한 지 며칠이 지났건만 사내는 감방 밖에서 보낸 그간의 시간이 오히려 꿈처럼 현실감이 없다. 사내는 출감 후부터 자꾸만 무엇인가 대단히 커다란 것을 빼앗겼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감방 안에서 사내는 손바닥 안에 움켜쥔 모래알이 빠져나가듯 하릴없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자기 몫의 삶의 부피를 안타깝게 저울질해 보곤 했었다. ~ 스물넷의 나이인 그에게는 세상 돌아가는 내력을 모르고, 아니 모른 척하고 산다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로 보아 이 글은 객관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기술되어 있다. 또한 등장인물의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할 만한 부분을 찾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정답: 4

문 19. ㉠과 ㉡에 대한 진술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년 지방직 7급 A채형 문19)

㉠예술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 말은 예술이 ㉡과학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설명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술가는 자신의 언어를 통해서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한다. 특히 낭만적인 예술가들은 예술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표현에 있다고 보고, 예술의 기능이 과학의 기능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과학이나 예술은 다 같이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물 현상에 질서를 주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과학이나 예술의 목적이 진리를 밝히는 데 있으며, 그들의 언어가 갖는 의미는 그 언어가 가리키는 지시 대상에서 찾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술의 언어가 과학의 언어처럼 지시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예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모나리자라는 여인을 모델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인물을 지시하고 표현했기 때문에 예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예술 작품은 실재 인물과 상관없이 표현의 결과물로서 존재한다. 이처럼 예술 작품은 의미를 갖는 언어 문치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예술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 ① ㉠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다.
- ② ㉠에 대한 개념을 밝히고 있다.
- ③ ㉠과 ㉡의 공통점을 기술하고 있다.
- ④ ㉠과 ㉡을 인과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2020년 지방직 7급 A채형 문19)

- ① ㉠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다. (O)
◆ ㉠에 대한 예시로 모나리자를 들고 있다.
- ② ㉠에 대한 개념을 밝히고 있다. (O)
◆ ‘예술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것이다.’로 보아 예술에 대한 개념을 밝히고 있다.
- ③ ㉠과 ㉡의 공통점을 기술하고 있다. (O)

◆ ‘예술이 과학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설명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 예술의 기능이 과학의 기능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과학이나 예술은 다 같이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물 현상에 질서를 주는 방법이라는 것이다.’로 보아 예술과 과학의 공통점을 기술하고 있다.

④ ㉠과 ㉡을 인과적으로 분석하고 있다.(X)

◆ 예술과 과학을 원인과 결과로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4

문 20. ㉠과 ㉡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년 지방직 7급 A책형 문20)

‘대중예술’이라는 용어는 다소 모호하게 사용된다. 이 용어는 19세기부터 쓰였고, 오늘날에는 대중매체 예술뿐 아니라 서민들이 향유하는 예술에도 적용된다. 이 용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비판과 의문은, 예술이란 용어 자체가 이미 고유한 미적 가치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예술이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모순이며 범주상의 오류라는 것이다. 이 같은 논쟁은 고급 예술과 대중예술 사이의 위계적 이분법 아래에 예술 대 엔터테인먼트라는 대립이 존재함을 알려 준다. 대중예술과 마찬가지로 엔터테인먼트는 고급 문화와 대비하여 저급한 것으로 널리 규정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엔터테인먼트와 대중예술에 관한 이론은 대개 두 입장 사이에 놓인다. ㉠첫 번째 입장은 엔터테인먼트가 고급 문화를 차용해서 타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엔터테인먼트를 고급 문화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종속되며 그것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두 번째 입장은 엔터테인먼트를 고급 문화와 동떨어진 영역, 즉 고급 문화에 도전함으로써 대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자체의 자율적 규칙, 가치, 원리와 미적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첫 번째 입장은 다양한 가치를 이상적인 진리 안에 종속시킴으로써, 예술의 형식과 즐거움의 미적 가치에 대한 어떠한 상대적 자율성도 인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 입장은 대중예술에 대한 극단적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고급 예술이 대중예술에 대하여 휘두르고 있는 오래된 헤게모니의 흔적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급 예술과 대중예술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

- ① ㉠은 고급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위계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 ② ㉠은 대중예술과 엔터테인먼트에 비해 고급 예술과 고급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 ③ ㉡은 고급 예술과 대중예술 사이의 관계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 ④ ㉡은 고급 예술과 고급 문화에 대해 대중예술과 엔터테인먼트의 독자성을 강조한다.

정답 및 해설 (2020년 지방직 7급 A책형 문20)

① ㉠은 고급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위계성을 설명하지 못한다.(X)

◆ ‘엔터테인먼트가 고급 문화를 차용해서 타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엔터테인먼트를 고급 문화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종속되며 그것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로 보아 엔터테인먼트가 고급 문화에 의존하고 종속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위계성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 ② ㉠은 대중예술과 엔터테인먼트에 비해 고급 예술과 고급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 ‘엔터테인먼트를 고급 문화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종속되며 그것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로 보아 ㉠은 대중예술과 엔터테인먼트에 비해 고급 예술과 고급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 ③ ㉡은 고급 예술과 대중예술 사이의 관계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 ‘두 번째 입장은 ~ 고급 예술과 대중예술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로 보아 ㉡은 고급 예술과 대중예술 사이의 관계성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 ④ ㉢은 고급 예술과 고급 문화에 대해 대중예술과 엔터테인먼트의 독자성을 강조한다.
◆ ‘엔터테인먼트를 고급 문화와 동떨어진 영역, 즉 고급 문화에 도전함으로써 대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자체의 자율적 규칙, 가치, 원리와 미적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 두 번째 입장은 대중예술에 대한 극단적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으로서’로 보아 ㉢은 고급 예술과 고급 문화에 대해 대중예술과 엔터테인먼트의 독자성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1

- 영보이 저서 -

- ◆ **2021**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한자 편” < 판매 중 >
- ★ **2021**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고사성어 편” < 판매 중 >
- ◆ **2021**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 판매 중 >
- ◆ **2020**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합격노트” < 판매 중 >
- ◆ **2020**영보이 공무원 고사성어(故事成語) “합격노트” < 판매 중 >
 - ※ 2017영보이 공무원 국어 핵심 기출문제집 < 구판임 - 구매하지 마세요! >
 - ※ 2017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기출문제와 그의 친구들 < 구판임 - 구매하지 마세요! >

- ◆ 2021영보이 공무원 한국사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2021영보이 공무원 행정법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2021영보이 공무원 행정학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영보이 이메일 < youngboy0710@naver.com >
- ◆ 영보이 블로그 < <http://blog.naver.com/youngboy0710> >
- ◆ 공시 공부는 이렇게: <https://blog.naver.com/youngboy0710/221152935702>